2008 새해설계 ①

포천향교 전교 정기용

"정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돼야"

세계의 平和를 실현하는 생활철학을 德目으로

"무자년 쥐의 해에는 쥐가 갖는 상징성처럼 다산(多産)과 근면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도덕과 인륜이 행해지며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천200여명의 포천유림의 교육과 제례를 담당하고 있는 포천향교 정기용(사진 · 75) 전교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교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덕목에 너무 얽매어 강조하지말고 우리 유교를 널리 보급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포천의 모든 기관을 통해 앞으로는 인성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각 읍면동 조직도 활용해 연중 교육사업을 통해 유교문화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야 하며 율 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각 읍면동 순회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정 전교는 지난 3년간 유도회 지부장을 맡아 유림활성화를 위한 조직강화에 나서 1천200여명의 유림조직을 정비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같은 공로로 중앙회로부터 표창도 받았다고 한다.

2008년도 포천향교의 주요사업으로 제향이 있다. 연 2회 실시하는 제향은 유림 전체가 참여하는 제향으로 춘기 · 추기 석전대제로 나눌 수 있다. 춘기는 2월 상정, 추기는 8월 상정에 실시하던 제향을 올해부터는 공자님 탄신일인 5월11일과 공자님 기일인 9월28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실시하는 분향사업은 교육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 전교는 유림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데 너무 완고한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 읽고 정신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 전교는 조선조 519년을 연면히 이어온 유교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실천으로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통해 자기 몸을 수신하고 나아가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이런 바탕 위에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생활철학을 덕목으로 하는 이상적인 가르침이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인류공영의 가르침과 실현은 이른바 삼강오륜을 통하여 생활철학으로 확립되었으며 불변의 진리인 오상(五常)이라고 하는 인, 의, 예, 지, 신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몸에 배었고 정의와 불의, 인륜과 불륜, 예의와 부도덕, 신의와 불신 등 인간생활의 가치기준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인류가 공통으로 이같은 가치실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정 전교는 무자년에는 이 땅 위에 인정이 넘치고 예의도덕이 실현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구한다며 가정에서는 공경과 효도가 가득하고 사회에서는 자기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겸손과 양보가 미덕(美德)이 되는 한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포천에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총선과 보궐선거가 있는 해로 훌륭한 일꾼을 잘 뽑아서 우리고장이 정말 축복 받는 지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향교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포천시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 전교는 예산의 뒷받침을 요구했다. 그동안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왔으나 우리 비용만으로는 행사가 제대로 안돼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 확대하여 삼강오륜의 생활철학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정 전교는 "포천신문은 포천의 어느신문보다 포천시민들이 많이 애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천신문에 유교관계도 신문기사가 되어 유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림에서 하는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7년7월6일자로 포천향교 전교로 취임한 정 전교는 포천시 소흘읍 출신으로 화산서원 원장, 포천시유도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포천향교 전교로 취임하여 오는 2010년7월까지 3년간 임기동안 포천향교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89

왕희지의 필법과 한퇴지의 문장으로 일컬어진 김 구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김구(金絿, 1488~1534)의 본관은 광주(光州)이고, 자는 대유(大柔), 호는 자암(自庵)이다. 예조판서 김예몽(金禮蒙)의 증손이다. 16세에 한성시(漢城試)에 장원하고, 중종 2년(1507년)에 생원 · 진사시에 모두 장원하였으며, 동왕 8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기묘사화 때에 부제학(副提學)으로서 개령(開寧)으로 귀양갔다가 남해(南海)로 옮겨 섬 속에서 13년을 지내는 동안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중종 26년에 임피(臨陂)로 옮겼다가 동왕 28년에 석방되자, 예산(禮山)으로 달려가 부모의 분묘(墳墓)에서 곡하고 추모의 정을 펴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분묘에 올라 눈물을 흘리니, 그 자리에 있던 풀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 그로 인해 병이 들어 1년 만에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쳤다.

김안국(金安國)이 소싯적에 생원 · 진사의 회시(會試)에 모두 장원이 되었는데, 방(榜)을 발표할 때에 "한 사람이 두 장원이 될 수 없다"하여 진사는 2등이 되니, 평생 그것을 한으로 여겼다.

김안국이 시관(試官)이었을 때 김구가 생원 · 진사시에 모두 장원이 되자, 모든 시관이 "한 사람이 모두 장원이 될 수 없다"하였지만, 김안국이 분연히 말하였다.

"왕희지(王羲之)의 글씨와 한퇴지(韓退之)의 문장으로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김구는 드디어 두 장원이 되었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그 이듬해인 중종 15년(1520년) 봄에 김구의 부인이 말 한 필에 짐 한 바리를 싣고 종 5, 6명을 데리고 김구의 적소(謫所)를 따라갔다. 그 때 김식(金湜)이 도망중이어서 현상을 걸고 그를 체포하려는 영이 매우 엄하여, 갈림길에 나졸들이 늘어서서 지키며 여행자는 모두 수색 검문한 뒤에야 보냈다.

경상감사 반석평(潘碩枰)이 노상에서 한 부인의 행차가 붙잡혀서 가지 못하고 길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겨 양곡을 주고 또 감영(監營)의 소속 아전을 시켜 그 일행을 호송하도록 하였다. 김구는 마침내 죽림(竹林)에 집을 짓고 살았다.

김구는 문장이 기이하고 필력(筆力)이 굳세어서, 위(魏)의 종유와 진(晋)의 왕희지(王羲之)의 필법을 사모하여 본받았다. 중국 사람이 자기 글씨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말을 들은 뒤로 글씨를 쓰지 않아서 필적(筆跡)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다. 김구의 필법을 '인수체(仁壽體)'라 했으니, 이것은 김구가 인수방(仁壽坊)에 살았기 때문이다.

김구가 한번은 옥당(玉堂)에 당직하고 있을 때이다. 달밤에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므로 나가 보았더니, 임금이 걸어서 옥당까지 오고 별감(別監)이 술을 가지고 따라왔다. 김구가 종종 걸음으로 나가 엎드리자 임금이 말했다.

"달이 이처럼 밝으므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곳에 이르렀다. 어찌 임금과 신하의 예로 대하랴. 마땅히 벗으로 서로 대해야 한다."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김구는 조선조 전기의 안평대군(安平大君), 한호(韓濩 -- 석봉), 양사언(楊士彦 -- 봉래)과 함께 사대명필가로 지칭된다.

뮤지컬 이야기 #38

예진아씨와 하이모, 그리고 1940년대 할리우드의 쥬디 갈런드(Judy Galand)와 미키 루니(Mickey Rooney)

요즘은 10대 팬들을 끌고 다니는 스타들을 아이돌 스타라고 한다. 80년대에는 조용필과 전영록이 오빠부대를 이끌며 한 시대를 풍미했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서태지가 등장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팬들까지 확보하며 나라 전체를 들끓게 했다. 이런 아이돌 스타들의 궤적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970년대 중후반에 발걸음이 멈춰지게 된다. 그리고 당시 인기절정에 있었던 하이틴 스타들의 이름과 만나게 된다.

하이틴 스타의 명콤비 임예진과 이덕화 그리고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이승현이라는 배우도 얄개 시리즈로 하이틴 스타 대열에 오른 배우였다. KBS의 인기 있는 건강 프로그램 〈비타민〉에서 노주현과 자주 다투며 재미를 주었던 중년 아줌마 임예진은 현재 예진아씨로 불리며 원조 국민여동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당시 고교생이었던 1970년대 중반에는 10대들을 몰고 다녔던 하이틴 스타의 대명사였다. 1976년에 문여송 감독이 연출하고 임예진, 이덕화가 콤비를 이룬 〈진짜진짜 잊지마〉가 흥행에 성공을 거두며 하이틴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졌을 때 두 사람은 모두 신인들이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임예진과 20대 중반의 신인 탤런트 이덕화의 연기조화는 참신하면서 풋풋했다. 개봉 첫날부터 학생관객들이 줄을 이으면서 당시 최고의 흥행실적을 기록했고 임예진이 다니던 M여자고등학교 주변에는 청순한 하이틴 스타를 보기위해 매일같이 수많은 남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을 정도였다. 〈진짜진짜 잊지마〉는 한국영화의 새로운 불을 지폈다는 평가와 함께 수많은 아류작들을 양산시켰는데 1976년 한 해만에도 20편이 넘는 하이틴 영화가 제작되었다. 이 영화 이후에 이덕화와 임예진은 〈진짜진짜 미안해〉〈진짜진짜 좋아해〉로 이어지는 후속작품에 계속 출연하여 청춘스타의 자리를 확고히 했으며 명실공히 70년대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 했다. 임예진은 1970년대 후반 또 다른 인기 하이틴 영화 시리즈였던 고교 얄개에서 배우 이승현과 콤비를 이루기도 했는데 현재 임예진과 이덕화는 조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중년의 아줌마 역할과 가발 CF 등으로만 10대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 때 수많은 10대 팬들을 몰고 다녔던 대스타였으며 흔히 말하는 청춘스타들의 원조격 배우라는 것을 아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

1970년대는 학생들에게 이성교제가 엄격히 규제되고 학교 선생님이 마치 군대의 상관처럼 가장 무서웠으며 항상 그렇듯이 공부만이 학생들의 최고덕목이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개봉된 하이틴영화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부모와 선생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남녀학생의 풋풋한 사랑과 우정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었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규제된 현실 속에서 잠시 일탈하여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관점과 영역이 있으며 부모세대의 편견적 시선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는 작품들이 더 인기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소재와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1940년대 미국의 하이틴 스타였던 쥬디 갈런드와 미키 루니가 콤비를 이루어 출연했던 작품들은 1970년대 한국의 하이틴 영화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쥬디 갈런드와 미키 루니는 함께 여러 편의 뮤지컬 영화에 출연하며 일명 '백야드 뮤지컬(Backyard Musical)'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들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베이브스 인 아암스(Babes in Arms)〉가 1940년 할리우드 뮤지컬 시장을 강타한 이후 〈스트라이크 업 더 밴드(Strike Up the Band, 1940)〉〈베이브스 온 브로드웨이(Babes on Broadway, 1941)〉가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고 두 사람의 콤비는 흥행의 보증수표이면서 MGM 영화사의 젊은 마스코트가 되었다. 이후에도 이들 콤비의 열연은 '앤디 하아디(Andy Hardy)' 시리즈로 이어지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이 두 사람의 뮤지컬 영화는 뒤뜰이라는 소박한 의미의 백야드 뮤지컬로 분류되며 1940년대 미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인 부모들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거두며 화해한다는 내용들은 1970년대 흥행에 성공한 한국의 하이틴 영화의 줄거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주인공들을 걱정하는 전형적인 부모들이 나오고 그들의 집이 주 무대가 되며 현실의 때가 묻지 않은 주인공들은 그들만의 소박한 공간, 즉 뒤뜰이나 빵집, 집 뒤의 야산에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룩하려는 플롯은 동서양과 시대를 초월하여 청소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익숙한 소재이기도 하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럼

21C 예술은 생명운동의 회복이다

예술인은 창작행위를 미끼로 하여 세상을 쉽게 낚으려는 상업적 수단으로 그물을 던질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과 꿈이 협연하는 생명운동의 닻을 올려야 한다.

예술은 반복된 교육과 이상을 통한 미적 사상을 창조하는 일이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미 산업발전과 물질적 중독의 탈선으로 자연을 분노케 했다. 이는 엄청난 과오였고 파괴였음이 자명하다. 그 엄연한 사실이 자연 앞에 무모한 도전이었으며 또 하늘에 대한 바벨이었음을 이제 반성해야 한다. 물질문명의 화려한 칼날 앞에 인간의 정신은 여지없이 무너졌으며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고한 이후 세계적 상황은 민족 간의 갈등과 반목이 조건적 요구불로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다. 곧 문화의 충돌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동안 성급한 변화의 욕심으로 민주주의적 매너리즘에 빠져 제도권이 외쳐대던 함성은 이제 멀미가 난다.

이것은 물질문명으로부터 불어오는 고독한 회의며 무서운 소외감으로 전이되기도 했다. 이로부터 파생된 고귀한 인간성의 상실은 지나친 풍요와 상대적 빈곤에서 얻은 변이의 바이러스다.

그러면 예술이 추구해야 할 몫은 과연 무엇인가. 자연과 사람과 사회가 공동으로 이루어내야 할 삼중주의 하모니(harmony)다. 우선 인간이 이 땅을 어떻게 유용하게 관리하며 행복한 값으로 빌려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 스스로의 존엄에 타종을 해야 한다.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만 한다.

불행히도 예술인들이 쏟아 온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무게를 두었던가? 창조적 작업보다는 현실적 다양한 소유의 욕구만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가치의 눈금을 올린 게 아닌가도 싶다. 게다가 명예적 욕망을 덤으로 얻으려 맹목적 탐욕을 부리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예술이 냐태한 타성에 안주하여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했던 건 아닌지.

그러면 예술의 궁극적 이데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행복 추구다. 아름다운 균형과 리듬에 부지런해야 함이다. 예술인이야말로 시대의 앞선자이며 사명자임을 자존으로 지탱하여 세상에 진솔한 등불을 밝혀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예술이 진실한 물리로 일어날 때에 사람의 그릇에는 풍족한 양식이 쌓이게 마련이다. 나아가 예술인이 아름답게 행진할 때 사람의 옷에도 꽃이 피어나게 된다. 이제 자연과 인간이 화해와 소통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예술인들은 목청을 돋우어야 한다. 아니 자연의 건강한 소리를 받아 적어 사람의 식탁에 올려야만 한다. 그래서 하늘은 푸르고, 숲은 짙고, 물은 맑으며, 땅은 기름지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아침의 창을 열어야 한다.

그러므로 넘어진 생명을 다시 일으키며 인간의 대지에 예술의 씨앗을 뿌려 탐실한 문화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 신과 자연과 인간이 즐겁게 화답하는 화목한 세상으로 삽질을 해야만 한다. 바로 21세기 예술의 위대한 과제는 생명운동의 회복이자 실천이다. 포천의 예술인이여! 찬란한 마당에 어서 꽃불을 당기자.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4)

화산서원(花山書院)과 배향인물(配享人物)

우리나라 서원은 중종 28년에 풍기군수 주세부 선생이 안향(安珦)선생을 모시기 위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운 것이 시초이며 우리 고을은 1660년 선조 때 문신 이항복 선생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화산서원(花山書院)이 시초이다. 원래는 백사(白沙) 선생의 모심을 뜻하여 「백사서원」이라 하였으나 「꽃뫼」로 이전 「화산서원」이란 사액을 받았다. (효종10년) 화봉산은 원래 수원 최씨 소유였는데 서원에 희사하였으며 최장군이라는 사람이 하룻 동안에 혼자서 서원건물을 옮겼다는 전설이다.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1인1사(一人一祠)의 원칙대로 서원 철폐를 단행할 시, 북청의 「노덕서원」에 백사를 모시던 선비들이 포천에는 백사 묘소도 있으니 북청 「노덕서원」에서 모시게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여 포천의 유림들이 양보하였으나 최근 1971년 포천 유림들의 노력으로 복원되기에 이르렀다.

「이정구」는 "공이 관직에 있기 40년 누구 한 사람 당색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초연히 중립을 지켜 공평히 처세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공에게서 당색이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의 문장은 이러한 기품에서 이루어졌으니 뛰어날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하여 선비로서 공의 기품을 칭송하였으며 최고의 외교관이었으며 선조임금을 호종한 지조 높은 충의(忠義)의 최고봉에 섰던 내 고향 출신 선비였다.

지 님은 조선조 최고의 명신(名臣)이자, 국란극복의 최선봉이 었으며 최고의 외교관이었으며 선조임금을 호종한 지조 높은 충의(忠義)의 최고봉에 섰던 내 고향 출신 선비였다.

서원은 사립 중등교육기관이었으나 임금이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이 되면 튼튼한 재단으로 운영되는 국립학교나 다름 없는 교육기관이다. 요즈음 같이 1년에 한번 배향인물에 대한 제를 올리고 서원장을 선출 보임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봉제사 보다도 교육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사 이항복」선생의 문충대의(文忠大義)를 본받아 님의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이 연중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내 고장에는 만고 충신 백사를 모시고 있는 서원이 있다는 자랑보다도 백사와 같은 인물이 배출되도록 교육에 힘쓰는 서원이 되야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祝當選大統領(축 당선대통령)

양 재 창
前 포천향교 전교

彗星出現燦吾東(혜성출현찬오동) 祝喊衝天處處同(축함충천처처동)
혜성이 나타나서 우리동국을 밝게 비추니 함성은 하늘을 찌르고 세계만방에 퍼지고 있네.

累代慶州遺厚澤(루대경주유후택) 多年海外振英風(다년해외진영풍)
여러대를 살아온 경주에는 조상들의 윤택이 전해오고 다년간 해외에서는 뛰어난 솜씨를 떨치었네.

遠籌抱負譽聲裏(원주포부예성리) 邃密經綸種德中(수밀경륜종덕중)
멀리 생가하는 포부는 기리는 소리로 이어지고 깊고 정밀한 경영솜씨는 많은 덕을 쌓았네.

復舊淸溪稱頌極(복구청계칭송극) 必成福社永無窮(필성복지영무궁)
청계천의 복구사업은 칭송하는 소리가 극진한데 이 나라의 복지 향상을 반드시 이루어 영원히 무궁케 하기를 바랍니다.